

음식물쓰레기 감사청구 기각

익산시의원 의혹 제기, 감사원 조사 결과 “문제 없다” 市, 행정불신·시민불안 초래, 공개 사과·해명 촉구

익산시의회 일부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한 조사 결과 전체가 모두 기각 처리됐다.

의정활동을 명분 삼아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무려 15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며 행정 불신은 물론 공무원들의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준 행동을 일삼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비판과 대시민 사과 및 요청이 제기됐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제기한 15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 관련 감사청구를 모두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임 의원이 제기한 재료비 과다지급 문제에 대해 시가 산정한 재료비 4억2,757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업체와 최종 계약한 금액의 단가는 11만1,460원으로 용

역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된 금액인 11만8,137원보다 7,677원 적게 계약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당하게 과다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업체가 제출한 대기방지시설 높이를 낮추는 시설개선계획을 익산시가 부당하게 수리함에 따라 2017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감사원은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구가 높이 5미터 이상이면 일정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외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하게 돼 있어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서 음폐수 처리단가가 톤당 1만4,806원으로 산정됐으나 실제 톤당 5,478원만 징수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은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비교해 설명했다.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음폐수 처리단가

가 원가보다 낮은 대신 약품비는 원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원가의 88.9%에 처리단가를 체결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독점·특혜 목적으로 하수처리기 처리시설 신설 허가, 하수처리기 감량화사업 변경 부적정 의혹 등 12건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특혜의혹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익산시는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물론 행정불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공무원들의 피감활동으로 인한 시간허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임 의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해명과 공식사과에 대한 사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국장은 “임 의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한 의혹과 부당 특혜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됐다”며 “개인 SNS를 이용한 악취문제 등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열심히 일해왔던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는 지난 21일 천안 봉강천에서 아생조류 분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라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의 AI차단을 위한 차단방역을 시행한다.

군산시,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총력

군산시가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천안 봉강천에서 아생조류 분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라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의 AI차단을 위한 차단방역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역대책은 본격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는 철새로 인한 AI 전파와 가금농가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철새도래지의 관리를 강화한다. 철새도래지 인근을 드론, 살수차, 방역차 및 방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내에서 낚시행위, 철새도래지의 방문객을 통제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초소를 운영한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사활’

정현을 시장, 매주 국회 방문... 인적 네트워크 활용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매주 국회를 방문하는 등 최대 목표치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8일 정부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에서 정현을 시장은 27일 국회심의단계 첫 행보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는 국회단계에서 국가예산의 증액이나 신규편성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검토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루어진 결정이다.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안도결 예산실장을 비롯해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 예산심 핵심 간부를 찾아가 익산시 핵심사업을 미리 설명하고 국회단계에서의 협조를 구했다.

먼저 예산실장을 만나 ▲왕궁 현업 추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을 설명하

다. 또한 축산시설의 철새도래지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진입 시 우회토록 조치하고 있다. 만일 군산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철새도래지의 산책로 등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가금 사육농가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하여 아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고, 축사 내부로 차량 및 사람 진입을 통제, 필수 소독을 철저히 한 차량만 축사내부로 출입이 허용된다.

소규모 가금농가의 방사사육금지, 개 인간 산양의 판매·이동금지, 전주시 장내에 종추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을 통한 가금사육농장의 예찰·점검을 강화해 의심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대-충남해양과학교, 지역인재 육성 ‘손잡다’

군산대학교는 27일 충남해양과학교 등학교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

을 체결했다. 군산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군산대학교는 27일 충남해양과학교등학교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군산대 광병선 총장, 최현재 입학처장, 이국용 입학부처장, 한현수 입학관리과장과 충남해양과학교등학교의 최진홍 교장, 부성보 교무부장, 정종원 교육정보부장, 남태호 취업지원부장 고이나라 현장실습담당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술 정보, 인력의 상호 교류 ▲장비 및 시설, 공간의 공동 이용 ▲정부 지원 각종 교육·연구사업 공동참여 및 지원 협력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자문요청에 대한 응답 등에 있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현재 입학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교가 보유한 강점을 상호 활용해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한동연 익산시의원,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화 규정 마련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익산 아산거구)이 의원발의를 통해 물 부족 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사

항을 명확히 하여 수도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설치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대상



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소식통

가을보리 적기파종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보리 파종적기를 오는 11월 10일까지로 보고 벼수확이 마무리되는 즉시 보리파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리가 월동하기 위해서는 월동 전 잎이 5~6매 확보해야 안전한 월동이 가능해, 파종 시기가 너무 빠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죽기 쉽고 늦게 파종하면 추위에 가장 약한 시기인 이유기(3~4매)를 월동하게 되어 동해를 쉽게 받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전한 보리재배를 위해서는 자가제초 종자보다는 가급적 정부보급종 사용을 권장하고, 종자전염병(깜부기병, 줄무늬병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종 전 종자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종자소독(종자 1kg당 비타자람 25g)은 파종 전 1일 전에 종자 표면에 골고루 묻혀 섞어주어야 한다.

파종시기에 잦은 비로 보리밭이 어려워 때에는 우선 씨를 뿌리고 흠뻑기 작업이 가능해졌을 때 배수구를 치면서 흠뻑기 작업을 하면 15일 이상 보리를 늦게 파종하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기상조건이 나쁘더라도 우선 씨를 뿌려 안전한 월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군산=한영봉 기자

상수도 동파 신속 대응

군산시 수도사업소는 동절기 상수도 동파 긴급복구반을 편성해 동파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파예방을 위해서는 수도미터와 노출된 수도관을 스티로폼이나 보온재 등으로 얼지 않도록 감싸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출입문과 창문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수도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해 수도미터가 동파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과 관계자는 “수도미터가 얼었을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며 “수도미터나 수도관을 뜨거운 물이나 불로 녹이면 온도 차로 인해 파열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